황금돼지해 고객 사은
특별 우대 금리 시행
동일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Weekend
The Kwangju Ilbo

결혼? 맞선 100번에도 아직이라면!

제17677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2월 10일 (음력 12월 23일) 토요일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0(土)	11(日)
구름 많음	맑음
1 / 8℃	-3 / 5℃

News

- 임금체불 업주 유형 ③
- 영암 삼형제의 성공 귀농 ④
- 박찬호 뉴욕 메츠行 ⑱

Jeollado

- 그 사람-장두석 민족의학자 ⑦

Entertainment

- 발라드가 돌아왔다 ⑧
- 변신이 아름다운 배우들 ⑨

Wellbeing

- 식품 집중 탐구-꼬막 ⑬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월드닥터 꿈 이뤄 기대 보답할게요"

■ 장성고 김윤하군 의대 입학 스토리

'국경없는 의사' 장래 희망
학비 없어 의대 포기 고민
인터넷서 '딱한 사연' 접한
삼진제약 6천만원 지원약속

외과의사가 돼 '국경없는 의사회' 조끼를 입고 세계의 분쟁지역에서 의료 봉사를 하고 싶었던 가난한 수험생이 한 제약회사의 도움으로 꿈을 이루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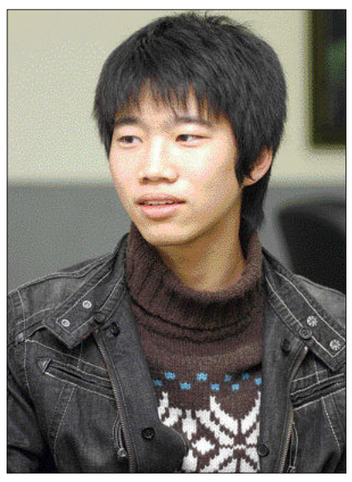
올해 장성고를 졸업하는 김윤하(19·나주시 영산동)군은 대학입시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둬 가톨릭대 의예과, 단국대 치의예과, 그리고 경찰대 등 3개 대학에 동시 합격했다.

하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었다. 김군의 가정형편으로는 연간 1천만원에 달하는 의대 등록금을 마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등록마감일은 꼬박꼬박 다가왔다. 어린 시절부터의 꿈인 외과의사의 길을 포기해야 했다.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경찰대에 진학하면 4년간의 등록금 부담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도 받을 수 있어 부모님께 부담을 지우지 않아도 됐던 것이다.

고민하던 김군은 지난 3일 성적이 상위권인 수험생들의 정보공유 사이트 '오르비스 옵티무스'(www.orbi7.com)에 자신의 상황을 글로 써 올렸다.

"의대 가는 것이 정말 오랜 꿈이었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이 많이 되네요. 언젠가 '국경없는 의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과 분쟁이 일어난 곳에서 긴급 구조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상상하면 가슴이 두근대곤 했었는데…."

가톨릭대 의예과 등록 마감일을 하루 앞둔 5일 김군에게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다. '사연을 접하고 회사(삼진제약) 차원에서 김군을 돕기로 했다. 연락을 바란다'는 내용의 메일이 도착해 있었다.



〈김윤하 군〉

김군의 글을 읽은 가톨릭대 의대 출신 의사인 정선문씨(경기 과천시에서 개업 중)가 평소 알고 지내던 삼진제약측에 김군의 사연을 전했고, 삼진제약은 장학금 지급을 약속한 것이다. 김군은 등록마감일인 6일 삼진제약의 도움으로 부랴부랴 입학금 547만원을 입금해 의사의 꿈을 이어가게 됐다.

삼진제약 관계자는 "사이트에 올린 글을 읽어보니 학생의 사연이 딱하고 뜻이 훌륭했다. 만약 김군이 의대에 진학하지 못한다면 귀중한 의사 한 명을 잃을 것으로 판단해 회사 차원에서 6년 간 학기당 500만원씩 총 6천만원을 지원키로 했다"고 말했다.

김군의 어머니 양정해(42)씨는 "아이가 진로를 앞두고 집안 형편 때문에 고민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는 줄 알았다"며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돼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사진=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고금~마량 연륙교 마지막 상판 올렸다 완도군 고금면과 강진군 마량면을 연결하는 연륙교의 마지막 상판이 9일 올려지고 있다. 지난 1999년 착공 이후 8년만이다. 상판 거치가 마무리되면서 760m에 이르는 대형 교량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 연륙교는 오는 6월 완공되며, 도서지역 관광산업과 농수산물 수송에 획기적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진=이병철기자 mood@kwangju.co.kr

박용성·김홍일·박지원씨 사면

12일 단행 김현철·권노갑씨 포함 434명…김우중·한화갑씨 제외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과 김대중 전 대통령 측근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 김홍일 전 민주당 의원 등 434명이 특별사면 또는 감형·복권됐다. 사면 가능성이 거론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한화갑 민주당 전 대표 등은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9일 오전 한명숙 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노무현 대통령 취임 4주년(2월 25일)을 맞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별사면안을 심의, 확정한 뒤 김성호 법무부 장관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을 일괄 발표했다. 〈주요 사면 대상자 명단 2면〉

정부는 이번 조치가 당면 과제인 경제 살리기에 전념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묵은 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이뤄졌다면서 사면·복권은 12일자로 단행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김우중 전 회장과 문병욱 썬앤문그룹 회장,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장진호 전 진로그룹 회장 등은 사면대상에서 제외했다. 박지원 전 문화부 장관, 심완구 전 울산시장이 형집행 면제됐다. 권노갑 전 민주당 의원, 김봉호 전 국회부의장,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씨, 김대중 전 대통령 장남 김홍일 전 의원도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16대 대선 선거사범인 영화배우 문성근씨와 설훈 전 의원, 이상재 전 의원 등도 특별복권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정치엘리트 국민에 고발할 것"

盧대통령 "개헌반대 담합, 침묵의 카르텔"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사실 (개헌을) 제안할 때는 정쟁이 공론으로 수렴되는 과정을 거쳐보자는 취지로 발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전부 덮어버리자는 분위기가 있으니까 지금 정치 엘리트를 일반 국민대중에게 고발하는 형태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낮 개헌문제와 관련해 한국헌법학회와 한국공법학회, 한국정치학회 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흔히 쓰는 말로 침묵의 카르텔이라고 하는데, 다 덮어버리니까 반대동맹이 있고 방관의 동맹이 있고 나머지는 없는 것 같다. 참 어려운 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이 나라 정치 엘리트, 자기들끼리 전부 담합해 가지고 (개헌이) 이 시기에서 필요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논의조차 덮어버리는 이 상황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엘리트 아닌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고발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호소해 나갈 작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지금 정치현실을 보면 다양한 의견도 있고 거기에 따른 치열한 경쟁도 있는데 다만 공론은 통용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대체로 보도를 보면 비정상적인 게임의 술수들을 끊임없이 보도한다"며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정치의 본질이 편을 갈라서 경쟁하고 싸우는 것, 말하자면 빗나간 권력투쟁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쉽게 용납해서 거기(정치)에 간섭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아닌가"라며 개헌문제에 대한 언론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